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21〉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

# 화려한 바로크 궁전서 클림트의 황금빛 유혹에 빠지다

빈=정상필 EU특파원

## 오이겐 공 별장 1903년 미술관으로
## 오스트리아 화가들 작품 주로 전시
## 연령 맞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에 있는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Osterreichische Galerie Belvedere)은 건물 자체가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의 영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벨베데레 미술관은 17세기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보이 가문의 오이겐(Prinz von Savoyen Eugen·1663~1736) 공(公)의 별장으로 쓰이던 건물에 들어서 있다. 원수의 지위에 이르고, 네덜란드 총독을 지냈던 그의 이름에 왕을 뜻하는 '프린츠'가 붙은 것은 그가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말해준다.

왕이 살았다고 해도 믿을 규모의 벨베데레는 깔끔하게 정돈된 프랑스식 정원을 가운데 두고 상궁(上宮·Oberes Belvedere)과 하궁(下宮·Unteres Belvedere)으로 불리는 두 개의 큰 건물로 이뤄져 있다. 벨베데레는 이태리어로 '아름다운 경치'란 뜻으로 언덕이나 정원 위에 전망을 위해 세워진 건물을 이른다.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 유행하던 건축양식이 차용됐다. 화려한 바로크식 건물과 정원에, 탁 트인 경치까지 보는 이의 눈을 잠시도 놓아주지 않는다. 외적인 화려함이 정작 내부에 전시된 작품들의 무게감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오이겐 공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하궁이 상궁보다 이른 1716년에 건축됐다. 오이겐 공 사후 1752년 합스부르크가의 여제 마리아 테레사가 하궁을 사들였다. 시대에 따라 군대가 주둔하고 황제의 가족들이 머물렀으며, 문서 보관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국가에 의해 미술관으로 개장한 것은 1903년이다. 1723년 지어진 상궁은 1919년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2차 세계대전 중 두 차례나 폭격을 받아 크게 파괴됐고, 상궁 1층의 대리석 홀은 1955년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이 이뤄졌던 장소여서 오스트리아 인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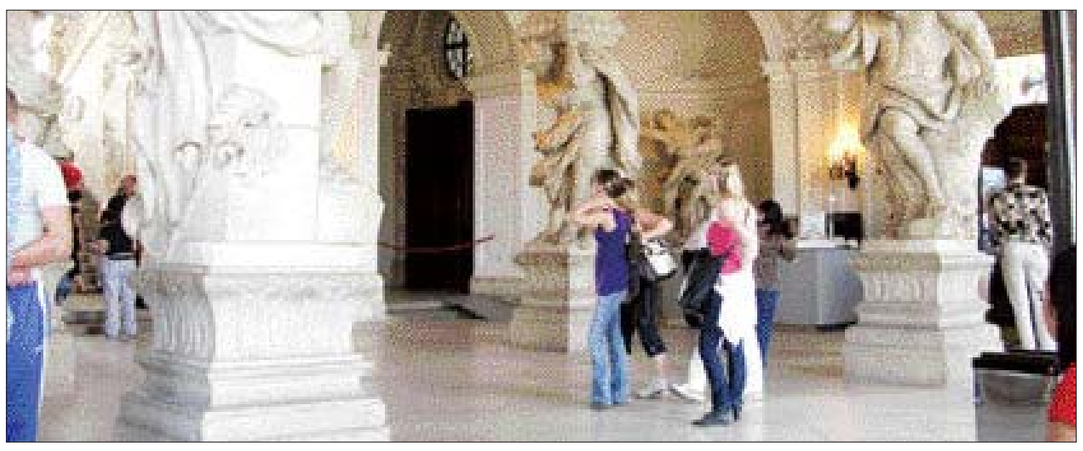
클림트, 실레, 코코슈카 등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들의 1900년 전후 미술을 중심으로 중세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미술관들이 대표 작품들을 입구에서는 다소 먼 곳에 전시하고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선 동선의 거의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과 달리, 벨베데레 미술관에는 1층에 웬만한 대표 작품들은 다 있다. 관람객들이 외적 아름다움에서 느낀 취기를 수습할 틈도 주지않고 대작들을 내놓는다. 1층 중앙홀에 전시된 클림트의 그림들은 특히 금박을 사용해 실제로 '빛'이 난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방도 인기를 끄는 방 중 하나다.

1903년 현대미술관으로 개장했던 벨베데레는 오이겐 공은 물론 황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까지 받아들이면서 소장품 규모를 늘린 결과, 1911년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궁에 있던 바로크 미술품들이 상궁으로 옮겨진 2008년부터 중세에서 20세기까지 아우르는 모든 작품의 상설전시가 상궁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궁은 특별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1945년 이후 오스트리아 미술품들은 따로 묶여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슈바이처 정원 내 1950년대 상징적인 건축물 '20세기 하우스(20er Haus)'로 2010년 옮겨질 예정이다.

학년과 연령에 맞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생일잔치. 생일을 맞은 어린이와 친구들에게 가이드 투어와 미술 놀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생일 케이크도 제공한다. 젊은이들을 위해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결혼식이나 리셉션, 강연, 콘서트, 등을 위해 미술관 내 정해진 공간을 대여하기도 한다. 이곳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근엄한 궁전에다 국립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과 괴리된 공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camus@kwangju.co.kr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상궁) 전경. 웅장한 바로크식 건물과 프랑스식 정원이 인상적인 벨베데레 미술관은 탄생에서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사보이 가문 오이겐 궁의 여름 별궁이었던 벨베데레 미술관은 내부장식이 화려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 오스트리아 대표 화가…20세기초 독특한 화풍으로 현대미술 지대한 영향

### ■ 구스타브 클림트

유럽의 각 나라마다 대표 미술관이 있고, 대표 화가가 있다. 프랑스엔 드라크루아, 르누아르, 고갱이, 벨기에엔 루벤스, 르네 마그리트가, 네덜란드엔 램브란트, 반 고흐가, 스페인에는 벨라스케스나 피카소, 후안 미로가, 이탈리아에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이 있다. 이 대표 화가의 면면과 숫자로 그 나라의 문화지수를 가늠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표 미술관이 벨베데레라면, 대표 화가는 단연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1862~1918)다. 상설전시되고 있는 클림트의 대표작은 황금빛이 인상적인 '키스'(1908·사진)와 '유딧 I'(1901)이다. '키스' 앞에는 금박의 화려함에 압도돼 발길을 떼지 못하는 관람객들에 의해 종종 정체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이들 작품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클림트의 풍경화들을 발견하는 재미는 보너스다.

유명화가들이 기존의 양식에 반기를 들어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듯이 클림트는 20세기 초반 빈 분리주의 운동을 주도하면서 전통미술에 반하는 장식적이고도 화려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우수에 찬 빈의 풍경이나 빈 상류층 여인들의 초상화 등을 주로 그렸다.

제자였던 에곤 실레(Egon Schiele·1890~1918)는 물론, 현대미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운명'을 형상화한 34m 짜리 대형 설치벽화 '베토벤 프리즈'(1902)는 빈 시내 분리주의 빌딩에 전시돼 있다.

벨베데레 미술관은 특히 '키스'에 깊은 애정을 보인다. 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린 클림트 특별전에서 '키스'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지난 100년간 단 한 번만 외부로 유출됐다. 미술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클림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널리 홍보하는 것을 보면, 개별 화가의 작품만을 떼어내 따로 미술관을 조성한 네덜란드의 반 고흐 미술관이나 벨기에의 마그리트 미술관처럼, 빈 시내에서 '클림트 미술관'의 개장을 보는 일도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닌 듯하다.